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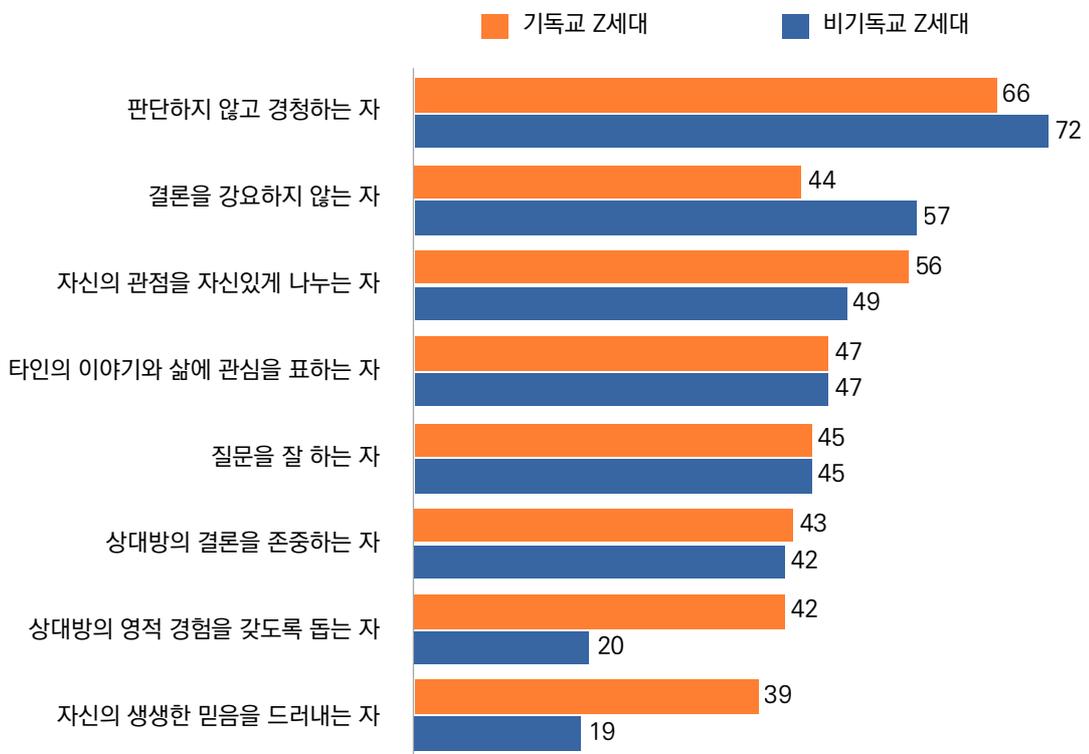
2. 미국 Z세대의 복음전도에 대한 인식



미국 Z세대(13-18세)가 가장 편안함을 느끼는 복음전도자, '판단하지 않고 경청하는 자'!

- 미국의 바나그룹(Barna Group)이 미국의 Z세대, 즉 10대 청소년(13세-18세)을 대상으로 복음전도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여 최근 그 결과를 발표했는데, '가장 편안함을 느끼는 복음 전도자'에 대해 기독교 청소년과 비기독교 청소년 모두 '판단하지 않고 경청하는 자'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
- 비기독교 청소년의 경우 '결론을 강요하지 않는 자'에 대한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.

[그림] 가장 편안하게 느끼는 복음 전도자(미국 기독교 Z세대*** vs 비기독교 Z세대, 상위 8위) (%)



*자료 출처 : Barna Group, 2021.11.10., 'What Makes an Engaging Witness, as Defined by Gen Z'. (미국에 거주하는 13-18세 남녀 청소년 1,324명, 온라인 조사, 2021.3-5-4.16) (<https://www.barna.com/research/gen-z-witness/>)

** 크리스찬타임스, 'Z세대가 정의하는 매력있는 전도자는?', 2021.11.12. (<http://kctusa.org/detail.php?number=17664&thread=22r07#>)

***기독교 Z세대 : 자신의 삶에 신앙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최소 한 달에 한번 이상 교회에 출석하는 청소년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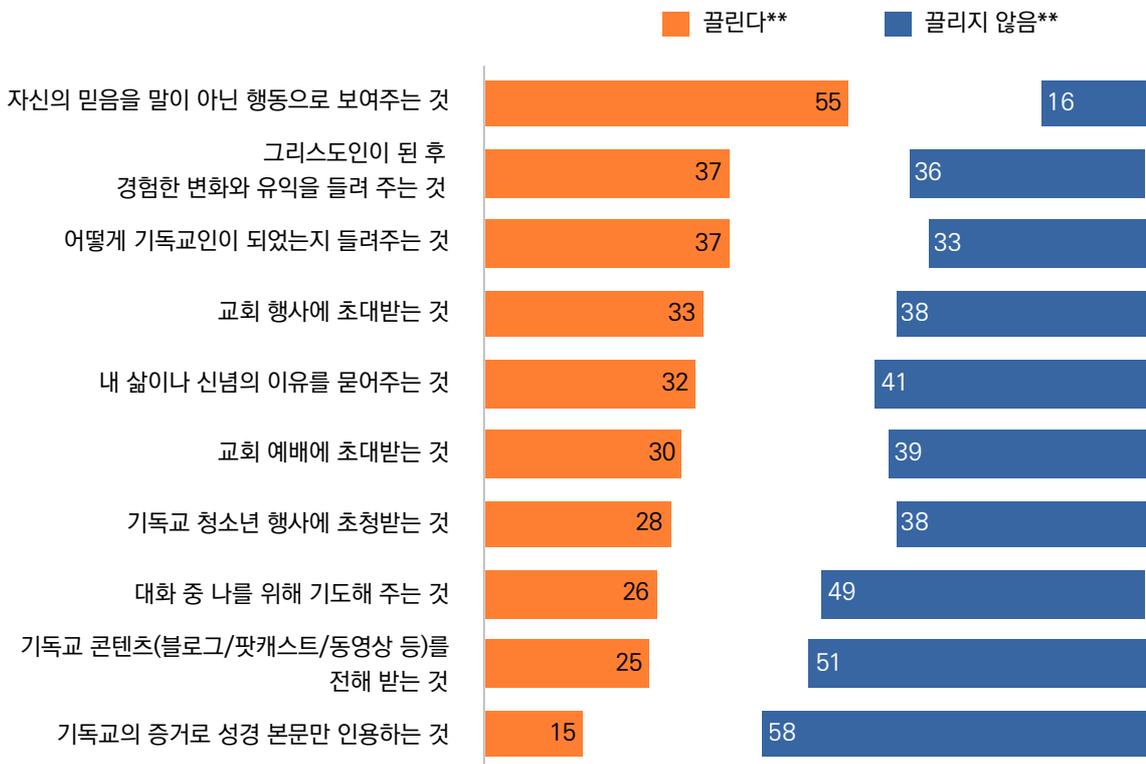
● 미국의 비기독교 청소년이 생각하는

가장 끌리는 전도방법 : ‘자신의 믿음을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’
가장 끌리지 않는 전도방법 : ‘기독교의 증거로 성경 구절을 언급하는 것’

- 비기독교 청소년이 가장 끌리는 전도 방법으로는 ‘자신의 믿음을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’이 55%로 가장 높았다.
- 반면에 가장 끌리지 않는 전도 방법은 ‘기독교의 증거로 성경 본문만 인용하는 것’이 58%로 가장 높았고, 다음으로 ‘기독교 콘텐츠(블로그/팟캐스트/동영상 등)를 전해 받는 것’ 51%, ‘대화 중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’ 49% 등의 순으로 꼽아, 성경적 말씀을 직접적으로 말로 하거나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.
- 이와 같은 결과는 효과적인 전도 방법이 삶으로 보여주는,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다.

[그림] 미국의 비기독교 청소년이 생각하는 전도방법 선호도

(%)



*자료 출처 : Barna Group, 2021.11.10., 'What Makes an Engaging Witness, as Defined by Gen Z'. (미국에 거주하는 13-18세 비기독교 남녀 청소년 393명, 온라인 조사, 2021.3-5-4.16) (<https://www.barna.com/research/gen-z-witness/>)

**5점 척도 중 '매우+다소' 매력적, '전혀+별로' 매력적이지 않음 수치임